# 올해 주거 트렌드 11 친환경 21 평면 31 올인원

자연친화적 입지·테라스하우스 등 인기 평면설계로 가변성·공간활용성 극대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단지내 도입 대세

부동산시장의 트렌드는 일정 주기로 바뀐 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니즈가 바뀌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의 대표 적 키워드는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 뉴스 테이, 테라스하우스였다. 전세난으로 인해 주 거용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었고,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전원주택과 타운하우 스의 장점을 결합한 실속형 테라스하우스가 대세였다.

올 주거문화의 트렌드를 이끌 키워드는 뭘 까. 전문가들은 친환경 주거단지,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평면, 올인원 커뮤니티 가 올 주거문화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 ●살(buy) 집에서 살(live) 집으로…친환경 주거 단지 인기

최근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소유가 아닌 거 주의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올 아파트 분양시 장에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친환경 단지 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테라 스 특화 단지의 반응이 좋았다.

올해도 지난해 인기에 힘입어 전 가구에 오 픈형 테라스를 설계한 단지가 등장하는 등 테 라스하우스가 인기몰이를 지속할 전망이다. 대 림산업이 첫 포문을 열었다. 대림산업이 내달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테라스 오포'는 문형 산 자락의 자연환경을 집 안에서 누릴 수 있 도록 모든 가구에 약 4.9~7.6m² 규모의 오픈 형 테라스 공간을 조성했다.

를 공급하는 사례도 있다. 한양이 내달 경기



대림산업이 내달 분양하는 'e편한세상 테라스 오포'의 내부 평면. 모든 가구에 소규모 오픈형 테라스 공간을 조 성해 자연환경을 집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수원 호매실택지지구에 공급 예정인 '수원 호 매실 한양수자인'은 서쪽의 칠보산에 기댄 채 황구지천의 지류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 터에 들어선다. 이에 맞춰 조경설계 및 조형물도 특화할 계획이다.

### ●나만의 공간을 만들자…라이프 담는 공간으로

올해는 수요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가변성과 공간활용성을 극대화한 신개념 평 면들이 국내 아파트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보 인다. 대표적인 것은 대림산업의 새로운 아파 트 플랫폼인 D.House다. D.House는 최소화 된 구조벽을 바탕으로 주방, 화장실과 같은 습식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원룸처럼 산과 물을 낀 자연친화적인 위치에 아파트 오픈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애주기(라이프사이클)에 맞게 공

간을 쉽게 분할하고 방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삼성물산이 개발한 복층형 평면인 래미안 아뜰리에 하우스는 아파트 최상층이 아닌 1층을 복층형으로 구성한다. 지하층은 녹음 실, 스튜디오, 영화감상실 또는 DIY룸과 같 이 다양한 취미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한 별도의 주방과 욕실을 구성해 사실상 독립 된 생활이 가능하다. 내부 연결계단을 통해 층간 이동이 가능하고,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별도 현관으로 외부 출입도 편리하다.

발코니 확장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적인 발 코니 공간을 제공하는 단지도 나온다. 대우건 설이 내달 공급하는 '평택 비전 2차 푸르지오' 는 저층가구 일부 타입에 6~8m² 규모의 발 코니 공간을 별도로 제공한다. 안방과 거실

발코니를 모두 확장하고도 별도의 수납 및 휴 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 ●자녀교육까지 단지 안에서 해결… 올인원 커뮤 니티 아파트

커뮤니티의 진화도 눈에 띈다. 과거 노인정 과 놀이터가 전부였던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이 최근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체육관, 도서 관을 비롯해 텃밭, 캠핑장, 영어교육시설까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시설의 발전 은 입주민들이 단지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단지 내에서 운동과 휴식, 육아, 문화생활까 지 다 누릴 수 있는 올인원(all-in-one) 형태 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 작년 송도국제도시에서 공급되며 단 기간 완판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에는 단 지 내에서 운동과 여가, 자녀 교육까지 한번 에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해 좋 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올해도 사회적으로 높아진 자녀 교육 열기 를 반영해 단지 내 교육 특화 커뮤니티의 인 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에 별동 학습관을 조성해 교육 특화 아파트로 인기를 끈 '반도유보라'가 대표적 사례다. GS건설이 천안에서 분양 중인 '천안시티자이'에는 SD A삼육어학원을 비롯해 영어도서관, 영어특 화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특히 천안지역 내 최초로 영어특화 프로그램이 적용된 보육 시설(어린이집)이 들어설 계획이다.

부동산컨설팅전문업체 더피알 정동휘 본 부장은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 면서 건설사들이 다양한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삶의 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 만큼 소비자 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담을 수 있는 평 면, 커뮤니티 등을 도입한 단지들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선정

영종도 지역서 한 곳만 선정…낙관론 경계 2019년까지 IBC-Ⅱ에 1조5000억원 투자

9개 지자체, 34개 업체가 도전했던 카지노 복합 리조트 경쟁은 미국 MTGA사와 한국 KCC 컨소시 움의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최후의 승자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26일 "14인의 심사위원회가 2박 3일 간 심사한 결과를 반영, 청구자격을 준수하고 투자계획 및 실행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 스파이어 리조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한국형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사업을 추진중인 파 라다이스 시티, 리포앤시저스를 포함해 영종도에 3개가 들어선다.

### ● '균형발전'보다 '집중효과' 선택한 정부

발표 전만 해도 업계에서는 공모조건을 충족한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미단시티의 임페리얼퍼시 픽 등 '인천의 두 개가 선정된다'는 관측과 공급과 잉, 균형발전, 그리고 총선 기대심리가 복합된 '인 천 1+기타지역 1'의 예상이 맞섰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을 모두 깨고 인스파이어 리 조트만 선정됐다. 균형발전을 내세웠던 진해, 여수 는 물론이고 공모조건을 맞춘 임페리얼퍼시픽도 탈락했다. 일단 정부는 '마카오나 라스베이거스처 럼 한 지역에 모여야 성공한다'는 주장의 손을 들 었다. 하지만 1개만 선정한 것에서 보듯 지나친 낙 관론도 경계했다. 한때 '1조원의 로또'로 불리던 복합리조트는 핵심시장인 중국의 경기침체, 반부 패정책과 맞물려 사업전망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에 2개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2개를 더 건설하는 것은 공급과잉으로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했다.

#### ●과제는 마카오 등 해외 복합리조트와의 경쟁력 확보

현재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바로 옆인 인천국제 공항 제1국제업무지역(IBC-I)에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한창 공사중이다. 총 사업비 1조3000억원 의 '파라다이스 시티'는 1단계로 호텔과 카지노를 2017년 3월까지 완공하고, 컨벤션, K-플라자, 스 파, 부티크 호텔은 7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미단 시티의 리포앤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도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카지노와 숙박시설, 2022년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권을 따낸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계획서에 서 제2국제업무구역(IBC-Ⅱ)에 2019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5성급 호텔과 국내 첫 파라 마운트 무비 테마파크,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시설 인스파이어 아레나, 제이미 올리버, 바비 플레이 등 글로벌 스타 셰프 레스토랑, 미국 스미 소니언 제휴 박물관 등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제 관건은 아시아의 대표 복합리조트 도시로 지명도가 높은 마카오와 싱가포르, 그리고 복합리 조트를 검토중인 필리핀, 대만 일본 등과 맞설 경 쟁력의 확보이다. 1조원이 넘는 사업비라고 하지 만 사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리조트와 비 교하면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하드웨어 투자 경 쟁의 불리함을 이겨내고 글로벌시장서 우위를 확 보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확보가 생존을 위해 필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 대우·롯데·대림, '안산 재건축' 경쟁

★효과100%후불제★

1회복용 5일지속 / 각종캡슐

두통 홍조 쓰림없는강한발기

저 정 한통(30정) 품 은박(32정)

올해 총 5391가구 중 1728가구 일반분양

대우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재건축 붐이 일고 있는 경기 성상 90년대 중반까지 공급되었던 주택들 의 노후화돼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 의 기대감이 높다.

올 경기 안산 지역에 분양예정 물량은 대 형 3사가 총 5곳에서 5391가구. 이 중 일반 에는 1728가구가 분양된다. 건설사 별로는 대우건설 3곳, 롯데건설 1곳, 대림산업 1곳 순이다. 분양물량 모두 재건축 아파트다.

안산 아파트 시세는 꾸준한 상승세다. K 단지로 교통환경도 장점이다. 지하 3층~지 지를 재건축해 3972가구를 공급한다는 계 안산에서 한판 붙었다. 안산은 계획도시 특 아파트 값은 3.3m°당 1231만원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동기(15년 1월) 기준 3.3m<sup>2</sup>당 1117만원 보다 10% 이상 올랐다.

올해 안산의 첫 분양 포문은 롯데건설이 연다. 롯데건설은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에 고잔 연립1단지를 재건축한 '고잔 롯데캐슬 골드파크'를 선보인다. 이 단지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4호 선 고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B국민은행 분석 결과 지난 1월 안산 지역 상 29층, 총 9개 동 전용 49~84m² 총 1005가구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분은 224가 구다.

대우건설은 2001년 '안산 고잔 1차 푸르 지오'를 비롯해 9차까지 안산에서만 1만여 가구를 공급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 다. 최근 분양한 최근 분양한 '안산 메트로 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와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도 흥행에 성공했다. 11월에는 안 산 초지동 및 원곡동 일대 연립단지 3개 단

적은흉터 최소절개

풍부한 경험

획이다. 3개단지 모두 초지역을 도보로 이 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대림산업·고려개발은 7월 안산 '군자주 공8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총 414가구 중 일반에 144가구를 분양 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선부제1·2공원, 자연 공원, 화랑유원지 등을 둘러싸고 있어 쾌적 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옆으로 관산 초교도 위치해 학군도 우수하다. 연제호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신용불량자 요금연체자

노트5 / 아이폰6S 할부개통가능

010-4835-9769

현금 80~290만원



농협 302-0895-9522-41 고려물산

010-2655-1326



- ★대체 진피이식술
- ★포경 · 무도정관수술
- ★각종 이물질 제거 (바세린 등)
- ★음경만곡증 (성기휨) 교정술
- ★**발기부전수술** (**굴곡형.팽창형** 시술로 성생활 가능)

※ 수술 당일 샤워, 일반적인 생활 가능 **|뉴맨**남성의원 위치 : 5호선 천호역 2번출구 한국투자증권 3층



열린상담

풍부한 경험

합리적인 비용



- 미세자가지방 이식술
- 주사요법 확대술
- 대체진피 이식술
- 정관 · 포경수술
- 바세린 및 이물질 제거술
- 각종보형물 삽입술



[수술당일 일반적인 생활가능]

대일남성의원을 검색해보세요!

※일요일·공휴일·야간 예약 수술 가능

※5·7호선 군자역 6번출구 농협 2층



수원역전 9번출구앞 서민유통 (031)241-4568